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김종성\* · 이병훈\*\*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아르바이트경험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 수업몰입도, 용돈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고등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낮아지고, 전교성적비율, 과거아르바이트 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고등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성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학교성적, 진로관련수업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관련수업에 참여할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인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진로관련수업 참여 여부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아래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본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차원의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 지원으로 전문상담을 통해 비몰입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겠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현장 경제 속에서 보다는 진로관련 수업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하며,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진로상담교사파견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소비욕구, 진로성숙, 진로교육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 머리말 : 연구목적

최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업과 동시에 일을 수행하는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로 확산일로에 있고(유성렬, 2005; 박창남·도종수, 2007), 이를 반영하듯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일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증조사연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4차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시기까지의 4년 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참여 경험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적어도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3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은·이혜경,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참여는 노동시장(Labor Market)의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나, 이제는 가족의 생계가 아닌 본인의 주체적 소비를 위해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이경상·유성렬·박창남, 2005).

이렇듯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미는 요인(Push Factor)’과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장원섭, 1999). 먼저 ‘미는 요인’과 관련 되서는 과거의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입시주위의 교육, 경쟁중심의 학교문화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학업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려 학생들을 학교가 아닌 노동시장으로 밀어내고(Push)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끌어들이는(Pull) 요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늘어난 소비욕구로 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인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돈마련으로 간주한다(한혜경, 2000). 즉 소비욕구는 늘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음에 따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벌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권병덕, 2002). 또한 중·고등학생의 학교교육이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몰입하고 있

는 교육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학생 스스로 노동시장참여를 꺼려왔으나,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재학 중 스스로 돈을 벌어 소비하는 시간제 근로, 소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의 경향에 힘입어 향후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성렬, 2005; 김예성·김선숙, 2009). 청소년기는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향후 일생을 살아가는 좌표가 설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해 보는가는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본인들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와 행동을 경험하는가는 향후 성인기 인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권병덕, 2002). 이렇듯 청소년기의 일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목해 본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이러한 아르바이트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sup>1)</sup> 자료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요인을 ‘미는 요인’과 ‘끌어들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둘째, 아르바이트는 중·고등학생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화(Socialization)와 정체성(Identity)형성에 영향을 주고(장원섭, 1999), 직업가치관 및 진로성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정경은·이혜경, 2005)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경험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경험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청소년패널(KYPS, Korea Youth Panel Survey)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대단위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2003년 1차 조사 이후 현재 6차 조사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 II. 선행연구문헌검토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먼저 ‘청소년<sup>2)</sup>과 일’이라는 큰 연구주제 속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국·내외 연구문헌을 통해 아르바이트 정의, 실증연구 동향,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 진로성숙의 정의, 설명변인, 국내실증연구동향 및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아르바이트경험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통해 연구목적의 좀 더 명확히 하겠다.

아르바이트(Arbeit)라는 단어는 노동, 일,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 Arbeit가 외래화하여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업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박창남·도종수, 2007).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일은 통상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면서 용돈벌이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이해된다.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교재학 중이면서 과거 혹은 현재에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즉 돈을 벌기 위하여 학업이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유성렬, 2005; 정경은·이혜경, 2005).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part-time employment)’이라는 연구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과 일’에 관한 국내연구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 초기에는 공부하는 학생과 일하는 근로청소년을 구분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일하는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일’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이면서 파트타임의 일을 함께 병행하는 소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유성렬, 2005; 정경은·이혜경, 2005; 유성렬, 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구주제는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태파악 및 정책제언에 관한 연구(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권병덕, 2002; 이경상·유성렬, 2007)이고, 두 번째 연구주제는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참여요인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유성렬, 2005; 유성렬, 2006)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주제는

2)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24세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의미는 19세 미만의 중·고교생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경험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원섭, 2001; 김기현, 2003; 정경은·이혜경, 2005; 김기현·유성렬, 2006; 박창남·도종수, 2007; 김예성·김선숙, 2009)이다.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설명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성적, 비행경험변수가 있으며 통상 아르바이트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업 성적과는 부(-)적인 관계를, 비행경험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렬, 2005).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연구 1차~3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년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를 통제한 상황에서 학업성적이 낮고 전년도에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고 전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성렬, 2006).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동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 경험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마지막으로 일의 종류, 성격, 일이 행해지는 상황 및 맥락(context)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이다(유성렬, 2005; 정경은·이혜경, 2005; 박창남·도종수, 2007). 먼저 청소년의 일 경험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립심, 책임감, 독립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능력, 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직기술(skill) 및 구직시에 필요한 직무기술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직업선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을 형성해 준다(Mortimer, Finch, Ryu, Shanahan & Call, 1996; Mortimer and Finch, 1996).

두 번째로, 고등학교 시절에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및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고, 현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시간과 학생의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 역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Mortimer&Finch, 1986). 특히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노동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 음주,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남용 수준을 증가시켰다(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 Ruggiero & Vaux, 1982; Mortimer, Finch, Shanahan & Ryu, 1992). 국내에서도 90년대 이후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한혜경, 2000; 김기현, 2003; 유성렬, 2005; 김예성·김선숙, 2009).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탈행위 및 성인문화를 일찍 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또래, 혹은 연장자와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생김에 따라 유흥가 출입 등 일탈행위, 비행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혜경, 2000). 최근에는 이러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동료의 비행성향이 증대되고, 용돈의 소비수준이 증가하여,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비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김선숙, 2009).

마지막으로 일의 종류, 성격, 일이 행해지는 상황, 맥락(context)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는 청소년의 일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과 맥락(context)에 주목한다(Mortimer & Ryu, 1994; Hansen&Jarvis, 2000). 즉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맥락(context)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적 맥락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경제적 맥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가족인가 나인가?’, 사회적 맥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세대 간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변화게 하는가?’ 혹은 ‘또래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이후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과 맥락을 중요시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즉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인가, 단순히 나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하고 특히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면서, 일의 종류 및 환경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직업가치관, 독립심, 책임감 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되었다(Mortimer & Ryu, 1994; 한혜경, 2000).

다음으로는 진로성숙의 정의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로성숙이란 Super(1955)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된 것으로 인간의 직업발달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걸쳐 이루어진다는 진로발달론에 입각한 것이다. 진로성숙은 통상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

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정정은·이혜경, 2005), 즉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계획·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Super, 1955; 임언·정윤경·상경아, 2001). 이러한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준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진로성숙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Gribbons & Lohnes, 1964).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성별, 학력, 성격, 가정배경, 가치관 등 개인적 차원,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기술의 혁신, 인구증가, 사회의 직업가치관 같은 사회·경제적 차원, 학교배경, 교육정책배경과 같은 교육체계적인 차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원도 교육원, 1996).

그러나 국내·외 실증연구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연구되었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와(Westbrook, 1984; Luzzo, 1995; 정정은, 200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는(Achebe, 1982)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성별과 진로성숙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장은미, 1996).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Super, 1955; 정채기, 1991; 정정은, 2004)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은 별다른 상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Lawrence & Brown, 1976; Kidd, 1984). 자아정체감<sup>3)</sup>과 진로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정채기, 1991; 김은진, 2001), 낙관성도 진로성숙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영순, 2006).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및 수업몰입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병석, 1992; 오은경, 2003; 정정은, 2004). 부모의 직업/학력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직업/학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지만(양한주, 1998; 오은경, 2003), 부모의 직업/학력과 진로성숙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이성우, 1990) 소수이긴 하지만 오히려

3) 자아정체감의 정의(김은진, 2001) : 전적으로 동일한 것, 또는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권영조, 1990).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Holland, 1981; 오은경, 2003),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및 부모의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정정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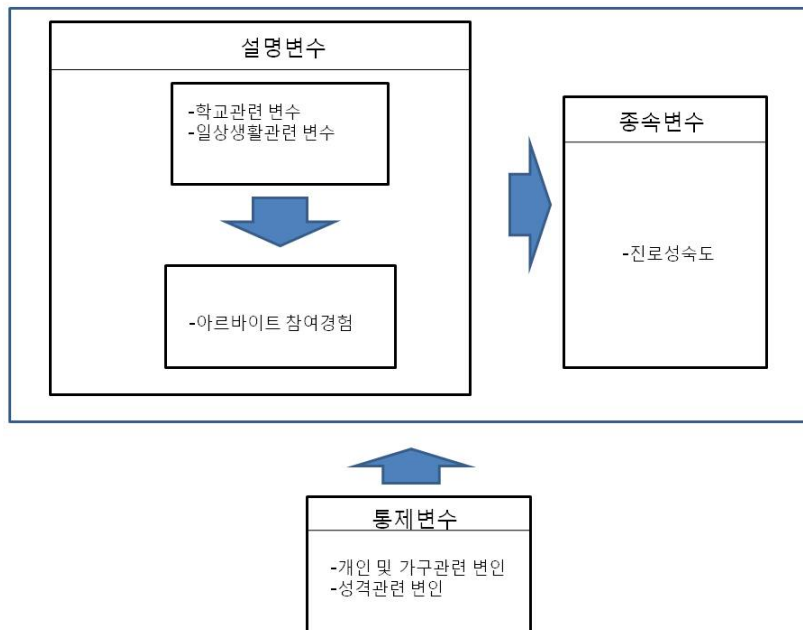
아르바이트경험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의 태도, 행동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방연, 2003),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그러나 정정은·이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와 진로성숙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이금란, 1999).

이제까지 국·내외 연구문헌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국내연구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sup>4)</sup>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원인 및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를 통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 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두 가지 연구 목적을 한꺼번에 해결할 만한 통합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을 ‘미는 요인(Push Factor)’과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으로 구분한 후 이를 실증분석해보고, 아르바이트 참여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일부 긍정적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4)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국내실증연구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음주, 흡연, 가출, 무단가출 등 청소년의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기현, 2003; 유성렬, 2005; 박창남·도종수, 2007; 김예성·김선숙, 2009).

### III. 연구모형과 분석변수

중·고등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요인을 분석해 보고,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목적인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로 구성된다. 한국청소년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당시 고등학교2학년)<sup>5)</sup>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투입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림 1] 연구모형

추정되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청소년패널 4차년도에 조사된 문항을 중심으로 ①학교생활관련변수 ②일상생활 관련변수 ③개인 및 가구관련변수를 포함시켰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문헌검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생

5) 당초 고등학교 3학년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능이후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논평자의 의견에 따라 분석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수정하였다.

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회자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미는 요인(Push Factor)’과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을 반영한 것인데(장원섭, 1999), 과도한 입시경쟁, 치열한 경쟁문화 속에서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인지(학교관련변수), 청소년 개인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일상생활관련변수), 아니면 본인이 속한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속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개인 및 가구관련변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학교생활관련 변수 관련해서 고등학교 종류는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로 분리한 후, 일반 고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한 가변수로 투입하였고, 수업몰입도는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변수와의 역인과성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패널 3차년도(당시 고등학교 1학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의 몰입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5점으로 환산한 후 5과목의 평균점수를 표준화(Z Score)시켜 사용했다.<sup>6)</sup> 학교생활만족도는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문항을 역코딩 한 후 요인값(Factor Score)을 투입했으며, 전교성적비율은 본인의 등수에서 전교등수를 나눈값에 100을 곱하여 만들었고, 이후 표준화시켜 사용했다. 둘째, 일상생활관련 변수에서 용돈관련 만족도는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대답하게 한 문항에 대해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5점 척도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표준화(Z Score)시켜 투입했다. 생활관련 만족도는 역시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라고 대답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점수화 한 후 표준화(Z Score)시켜 사용했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6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요인값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6개 문항은 다음

6) 수업몰입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르바이트 경험유무가 수업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변수간의 역인과성을 고려하여, 1년 전 수업몰입도 변수를 사용했다.

과 같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함께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이다.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매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을 사용했는데, 전혀 없으면 0, 매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3이 되는 것이다. 로짓분석에 투입할 시에는 표준화시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에서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여성이면 0, 남성이면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가구소득은 한국청소년패널 4차년도 조사당시의 가구소득을 자연대수값(log)으로 전환하여 투입하였다. 부모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이상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각 학교급을 졸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학교졸업이하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 연구목적인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 종속 변수는 진로성숙도로 구성되었다. 진로성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에 조사된 진로성숙도관련 설문 중 5개 문항에 관한 요인값을 사용했는데, 각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변수들로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①학교생활 관련 변수 ②아르바이트 경험변수 ③성격관련변수 ④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를 포함시켰다. 학교생활관련 변수로는 첫 번째 연구목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투입했던 고등학교 종류, 수업몰입도, 진교성적비율 이외에 진로관련수업참여 변수를 추가했다. 이는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로성숙을 높인다는 기존연구를 반영한 것으로 진

로교육수업 참여여부를 가변수로 투입했는데, 작년에 진로관련 활동관련해서 강연이나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사용했다. 아르바이트 경험변수로는 최근

<표 1>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 분석 변수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비 고                |
|----------------|-------------|------|-------|------|--------------------|
| [학교생활관련 변수]    |             |      |       |      |                    |
| 고등학교 종류        | 실업계         | 3065 | .24   | .43  | 준거집단 : 인문계         |
|                | 예체능계        | 3065 | .01   | .09  |                    |
| 수업몰입도          |             | 3039 | 0     | 1    | 표준화(z값)            |
| 학교생활만족도        |             | 3121 | 0     | 1    | 요인값(Factor Score)  |
| 전교성적비율         |             | 2268 | 0     | 1    | 표준화(z값)            |
| 진로관련수업참여       |             | 3121 | .25   | .43  | 0=없다, 1=있다         |
| [일상생활관련 변수]    |             |      |       |      |                    |
| 용돈만족도          |             | 3121 | 0     | 1    | 표준화(z값)            |
| 생활만족도          |             | 3121 | 0     | 1    | "                  |
|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 3120 | 0     | 1    | 요인값(Factor Score)  |
| 과거아르바이트 경험유무   |             | 3012 | 0     | 1    | 표준화(z값)            |
|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 |             |      |       |      |                    |
| 성별             |             | 3449 | .5    | .5   | 0=여자, 1=남자         |
| 연령             |             | 3233 | 17.79 | .41  |                    |
| 가구소득           |             | 2980 | 2.45  | .23  | 자연대수 값(LOG)        |
| 아버지학력          | 고등학교 졸업     | 3058 | .45   | .50  | 준거집단 :<br>중학교 졸업이하 |
|                | 2년제 대학 졸업   | 3058 | .07   | .26  |                    |
|                | 4년제 대학 졸업이상 | 3058 | .36   | .48  |                    |
| 어머니학력          | 고등학교 졸업     | 3040 | .60   | .50  |                    |
|                | 2년제 대학 졸업   | 3040 | .05   | .21  |                    |
|                | 4년제 대학 졸업이상 | 3040 | .18   | .39  |                    |
| [성격관련 변수]      |             |      |       |      |                    |
| 자아정체감          |             | 3121 | 0     | 1    | 요인값(Factor Score)  |
| 낙관성            |             | 3121 | 0     | 1    | "                  |
| [종속변수]         |             |      |       |      |                    |
| 최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 3121 | .15   | .36  | 0=없다, 1=있다         |
| 진로성숙도          |             | 3121 | 0     | 1    | 요인값(Factor Score)  |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를 가변수로 투입했는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투입했다. 성격관련 변수는 자아정체감과 낙관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기준연구를 반영한 것으로(김길정, 2003; 정미란, 2005; 최영순 2006), 자아정체감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요인값을 투입했다.<sup>7)</sup>

낙관성은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을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요인값을 사용했다<sup>8)</sup>.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는 첫 번째 연구목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투입했던 일상생활관련 변수 중 에서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및 부모의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한 것이다(정정은, 2004). <표 1>은 분석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IV. 분석결과

### 1.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적인 아르바이트 참여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 청소년패널 4차년자료를 중심으로 과거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7)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박아청(1998)이 고안한 ‘한국형 정체감 검사’가 있다. 이는 미래확신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8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성 항목을 자아정체감 항목으로 대체했다.

8) 낙관성이란 행동 및 감정에 관계되는 것으로 신체적 성장과 관련 없이 안정성이 있고, 성격특성의 주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잘 될 것 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의된다(윤차선, 2002).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낙관성을 측정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sup>9)</sup>.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예측자 변수군의 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나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려는 상황에서 유용한 통계분석기법으로 선형 회귀분석 모형과 유사하나 종속변수가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이 이분형인 모형에 적합하다. 통상 로지스틱 회귀계수는 모형의 각 독립변수에 대한 승산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한국사회학회, 1999).

〈표 2〉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는 학교생활관련 변수, 일상생활관련 변수,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를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수업물입도가 높고 전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물입도가 1점 높아질수록 승산비는 .93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부(-)의 값이 유의미하므로 수업물입도가 1점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교성적은 비율로 투입했는데 전교성적이 1% 증가할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1.37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현장, 서열문화에 젖어있는 학교문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수업물입도와 학교관련 만족도가 떨어져 학생들을 학교가 아닌 노동시장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과 둘째,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개인·가족 관련 변수에서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업물입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승산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기 보다는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참여로 내몰리고(push)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9) 한국청소년패널(KYPS)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패널자료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병합(merge)하여 pooled (logit)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평자의 의견에 따라,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4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로짓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아르바이트 참여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Logistic Regression)

| 변 인                       |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
|---------------------------|--------------|-------------|-------|
|                           |              | 로짓계수        | 승산비   |
| 상수                        |              | -1.150      | .317  |
| <b>[학교생활관련 변수]</b>        |              |             |       |
| 고등학교<br>종류                | 실업계 고등학교     | .518        | 4.564 |
|                           | 예·체능계 고등학교   | .491        | 1.634 |
| 수업몰입도                     |              | -.073***    | .930  |
| 학교생활만족도                   |              | .111        | 1.117 |
| 전교성적비율                    |              | .320**      | 1.377 |
| <b>[일상생활관련 변수]</b>        |              |             |       |
| 용돈만족도                     |              | -.238***    | .788  |
| 생활만족도                     |              | -.001       | .999  |
|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 -.060       | .942  |
|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              | .402***     | 1.494 |
| <b>[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b>     |              |             |       |
| 성별                        |              | .075        | 1.078 |
| 연령                        |              | -.028       | .973  |
| 가구소득                      |              | -.278       | .757  |
| 아버지학력                     | 고등학교졸업       | -.479       | .619  |
|                           | 2년제 대학교졸업    | -.685       | .504  |
|                           | 4년제 대학교졸업 이상 | -.965       | .381  |
| 어머니학력                     | 고등학교졸업       | .352        | 1.422 |
|                           | 2년제 대학교졸업    | .613        | 1.846 |
|                           | 4년제 대학교졸업이상  | .493        | 1.638 |
| N                         |              | 1901        |       |
| Model Chi-square          |              | 258.640     |       |
| -2log likelihood          |              | 1228.808    |       |
| Nagelkerke R <sup>2</sup> |              | .234        |       |

주: \*p<.05 \*\*p<.01 \*\*\*p<.001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관련 만족도에서는 용돈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낮아지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2학년 조사당시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만족도가 1점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78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부(-)의 값이 유의미하므로 용돈만족도가 1점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21.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인이 받고 있는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부족한 용돈을 본인 스스로 벌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면서 중·고등학생들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세워 휴대폰, MP3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의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더 생긴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애용하는 PC방, 노래방, 게임방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돈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러한 소비 욕구는 용돈에 대한 불만을 야기 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의 용돈에 대한 불만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구를 가중시켰고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과거에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가 1회 늘어날수록 고2 당시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1.49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수업몰입도와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용돈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본인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미는 요인(Push Factor)과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이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3.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 분석

〈표 3〉는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는 학교생활관련 변수,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변수, 성격관련 변수,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를 투입했다. 분석결과 학교생활관련 변수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전교성적비율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교육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업성취도 및 수업몰입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기존연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이병석, 1992),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몰입도가 높은 만큼 본인의 향후 진로에 관해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며(오은경, 2003), 학업성취도에서 얻은 자신감은 본인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데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수업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배려 받았고, 담당진로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함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이금란, 1999). 성격관련변수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 것처럼,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로성숙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김은진, 2001).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은 여학생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래 및 미래에 관한 성찰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아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정정은, 2004).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통상 중·고등학생시기에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런 경험은 풍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향후

&lt;표 3&gt;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회귀분석(OLS)

| 변 인                   |              | 회귀계수     |
|-----------------------|--------------|----------|
| <b>[학교생활관련 변수]</b>    |              |          |
| 고등학교 종류               | 실업계 고등학교     | -.205    |
|                       | 예·체능계 고등학교   | .764     |
| 수업몰입도                 |              | .019     |
| 전교성적비율                |              | -.059*** |
| 진로관련수업참여여부            |              | .173***  |
| <b>[아르바이트 경험변수]</b>   |              |          |
| 아르바이트경험유무             |              | .004     |
| 최근아르바이트 경험유무          |              | .003     |
| <b>[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b> |              |          |
| 성별                    |              | -.155**  |
| 연령                    |              | .091     |
| 가구소득                  |              | .026     |
| 아버지학력                 | 고등학교졸업       | -.059    |
|                       | 2년제 대학교졸업    | -.121    |
|                       | 4년제 대학교졸업 이상 | -.134    |
| 어머니학력                 | 고등학교졸업       | .082     |
|                       | 2년제 대학교졸업    | .089     |
|                       | 4년제 대학교졸업이상  | .173     |
|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 .084***  |
| <b>[성격관련 변수]</b>      |              |          |
| 자아정체감                 |              | .124*    |
| 낙관성                   |              | .043     |
| F (sig)               |              | 7.140    |
| R <sup>2</sup>        |              | .067     |
| Adj. R <sup>2</sup>   |              | .058     |
| 사례수                   |              | 1901     |

주: \*p<.05 \*\*p<.01 \*\*\*p<.001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하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직업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배려(ex. 아

버지 직장체험, 직업관련 체험관 방문 등)를 해준다. 이러한 부모와의 원만한 유대관계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높여 향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적시에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정정은, 2004),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실증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아르바이트경험관련 변수는 회귀계수만을 보았을 때는 정(+)의 상관관계, 즉 아르바이트를 경험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는 채택할 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참여와 진로성숙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참여와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여학생 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와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관련수업을 참여해본 경험의 있고, 자아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정책함의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물음에서 시작했는데, 첫째, ‘중·고등학생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에 답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이었다.

분석결과, 첫 번째 연구물음에서는 수업몰입도가 높을수록, 용돈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승산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교육보다는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Push Factor),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욕구가 아르바이트 참여촉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Pull Factor)을 알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연구물음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관련수업에 참여할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인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진로관련수업 참여여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고등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단순 업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일탈 및 비행에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한혜경, 2000; 김기현, 2003; 유성렬, 2005; 김예성·김선숙, 2009), 우리는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아래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점을 크게 주목해야겠다. 현재 일탈 및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예방차원의 교육보다는 사건 후 훈육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 후 훈육차원의 체벌 및 교육은 그들의 일탈 및 비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학교당국에서는 학교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ex. 개인맞춤형 학습, 놀이형 학습 등), 비몰입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막는다면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음주, 흡연 등 성인문화를 접하고, 이후 비행으로 이어지는 비행의 원천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몰입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전문상담을 받게 함으로서 학교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학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중·고등학생들의 늘어나는 소비욕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규학습시간에 ‘본인의 합리적 지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실질적 경제관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의 소비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현장 경제 속에서 보다는 진로관련 수업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겠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의 여건상 단순히 진로교육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커리어코치와 같은 진로상담전문교사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원도교육연구원(1993).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강원도교육연구원.
- 권병덕(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참여연대.
- 권영조(1990).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제6호, pp. 115-144.
- 김기현·유성렬(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경험에 대한 중단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예성·김선숙(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비행 및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탐색.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139-161.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창남·도종수(2007).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제5호, pp. 345-374.
- 박아청(1998). 자아의 탐색. 서울, 교학사.
-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55-281.
- 유성렬(2006).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변화추이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pp. 187-229.
- 윤차선(2002). 낙관성 훈련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상·유성렬·박창남(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유성렬(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금란(1999).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

- 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석(199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우(1990). 중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숭실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위 · 박창남 · 정혜영(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중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언 · 정윤경 ·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1999).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교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 개발연구, 제2권.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95-108.
- 장은미(1996).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방연(2003). 실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은 · 이혜경(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pp. 59-79.
- 정정은(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적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영순(2006). 중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사회학회(1999). SPSS사회조사분석. SPSS아카데미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한혜경(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 153-180.

Achebe, C. C. (1982).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0, pp. 153-161.
- Greenberger, E., & Steinberg, L. (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York: Basic books.
-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 Among Measure of Reading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1.
- Hansen, D. M., & Jarvis, P. A. (2000). Adolescence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Youth & Society*, Vol. 31 No. 4, pp. 417-436.
- Holland, J. L. (1981). *Making vocational choice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Kidd, J. M. (1984).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to the occupational prefer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Lawrence, W., & Brown, D. (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 Luzzo, D. (1995). Gender difference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3, pp. 319-325.
- Mortimer, J. T., & Finch, M. D. (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 concept and achievement*. In K. Borman & J. Reisman(Eds.) *Becoming a Worker* pp. 66-89 Norwood, NJ : Ablex.
- \_\_\_\_\_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No. 1, pp. 25-57.
- \_\_\_\_\_ Shanahan, M. J. & Ryu, S. (1994).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v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pp. 304-326) NY : Springer-Verlag.
- \_\_\_\_\_ Finch, M. D. (1996). *Adolescents, work, and family*. CA : Sage Publications.

- \_\_\_\_\_ Finch, M. D., Ryu, S., Shanahan, M. J. and Call, K. T. (1996).  
The effects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a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243-1261.
- Steinberg, L. D., Greenberger, E., Garduque, L., Ruggiero M. & Vaux, A. (1982).  
Effects of work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3*, pp. 385-395.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 Westbrook, B. K. (1984). *Career maturity : The concept, the instrument, and the  
Research*. In W. B. Walsh and S. B. Osipow(Eds.)

〈부 록〉

| 요인변인                                 | 설 문 문 항                                                 | 평균   | 표준편차 |
|--------------------------------------|---------------------------------------------------------|------|------|
| 진로성숙<br>( $\alpha = .700$ )          |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 3.45 | 1.13 |
|                                      |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 3.60 | 1.15 |
|                                      |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4.07 | 1.12 |
|                                      |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 4.08 | 1.26 |
|                                      |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3.90 | 1.06 |
| 학교생활만족도<br>( $\alpha = .795$ )       |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 4.42 | .79  |
|                                      |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 4.23 | .92  |
| 부모와의<br>관계만족도<br>( $\alpha = .891$ )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3.38 | .90  |
|                                      |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3.76 | .84  |
|                                      | 부모님과 함께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3.48 | .90  |
|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3.28 | 1.02 |
|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3.36 | 1.02 |
|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 3.48 | .91  |
| 자아정체감<br>( $\alpha = .813$ )         |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26 | .85  |
|                                      |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52 | .83  |
| 낙관성<br>( $\alpha = .696$ )           |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 3.12 | 1.02 |
|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2.83 | 1.08 |

## ABSTRACT

### A Study on Participation in Part-Time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areer Maturity

Kim, Jong-Sung\* · Lee, Byoung-Ho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 in part-time employment (so-called 'Albeit') and how their part-time job experience affects their career maturity, by drawing upon the panel data of the KYPS(Korea Youth Panel Survey).

Our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dds of part-time job's experience for the student decrease with higher levels of class immersion and contentment with spending money. The odds of participating in part-time work experience increases with the the incidence of lower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 together with the frequency of past part-time work experience.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immersion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puts them under stress, thereby driving them into the labor market. This also indicates that students' spending appetites affects their desires to participate in part-time employment.

Secondly,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factors such as sex, satisfaction in the parental relationship, academic performance, and attending to career education class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The career maturity of female students appears to be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Career maturity increases with higher level of the satisfaction of the parental relationship, academic ranking the attending of career education's classes. Attending to career education class has a higher influence on students' career maturity than the

---

\* Researche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experience of part-time work. The experience of part-time work is rather simplistic in that the students gain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of work through their work experiences.

These findings have a number of policy implications. Firstly, in that young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affects their deviant behavior, school authority offers systematic programs and professional counselors for students, who lose their immersion in class studies. Secondly, attendance at career education classes has a more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career maturity than their experience of part-time job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career maturity, both schools and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provide systematic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professional career coaching to students at bo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Key Words** : part-time job, labor market,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career maturity, career education

투고일 : 2월 7일, 심사일 : 6월 14일, 심사완료일 : 6월 14일

